



추모 고조...참배객 '복적'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김예리 기자

5·18 광주로...전국서 추모 행렬

5·18 39주년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전 국민적 관심이 광주 5·18 국립묘지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자유한국당 방해로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5·18방언을 비롯한 가짜뉴스 등이 이슈로 오르면서 추모 분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의 광주 방문도 잇따르고 있다. ▶관련기사 3·4·6·15면

15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충청·경상·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광주로 향한 추모 인파는 올해(1월1일~5월14일) 총 12만2천159명으로 집계됐다. 5월 중순(1일~14일)까지 추모객 수는 총 4만1천131명에 달한다. 1월(1만4천874명), 2월

이달들어 민주묘지 참배 크게 늘어 작년 규모 넘어설 듯
진상규명 국민적 염원 입증...정치권 '빈손' 방문 실망

(1만9천777명), 3월(1만6천889명), 4월(2만9천489명)에 비하면 월별 추모객 수가 5월에만 약 2배 이상이 묘지를 왔다간 셈이다. 이달 들어 하루 참배객도 3천~4천명에 달하는 등 지난달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전야제가 열리는 17일과 기념식 당일인 18일이 토요일이라는 일정상 이번 주말 추모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예년에 비춰보면, 5월 한달 참배객은 약 4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작년 34만여명 규모를 넘어설 전망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18일에만 무려 4만5천여명이 국립묘지를 다녀

갔는데 올해는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 토요일 주말이라서 참배객이 더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속속 광주를 찾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광주를 찾는다. 시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5·18묘지를 참배하고 이어 오후 옛 전남도청에서 복원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5·18단체 관계자를 만날 계획

이다. 이들은 5·18 망언자 퇴출과 5·18 진상 규명 및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도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날 39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도 전야제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운영진 전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총선을 1년가량 앞둔 데다 왜곡 논란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이 기자
/최환준 기자

일용직도 급격 감소 광주 고용절벽 심화

광주 고용시장에 봄바람은 불지 않았다. 지난달 전국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 지역 고용률이 전년 동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1만명(-1.4%), 일용근로자 수는 1만1천명(-27.2%)이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4월 광주·전남 고용 동향'을 보면 4월 광주 고용률은 58.9%로 전년 동월 대비 1.0%p 하락했다. 취업자는 74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 감소했다.

특히 취업자는 74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4%) 감소했고 경제활동 인구인 15~64세 고용률도 64.0%로

근로자는 전년 동월대비 1천명(-0.3%) 감소했고, 이 중 자영업자는 0.1%, 무급가족 종사자는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임금 근로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명(-1.7%) 감소했고, 이중 일용근로자는 1만1천명(-27.2%), 임시 근로자는 1만명(-6.4%) 줄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경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4천명(3.4%) 증가한 13만2천명,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만4천명(-2.2%) 감소한 60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보험세를 보였다. 4월 전

4월 고용률 58.9% 전년비 1.0%p ↓...일용근로자 27.2% ↓

전국 실업률 4.4%,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기록

전년 동월 대비 0.9%p 떨어져 트리플 악재를 보였다.

취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4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천명(-0.2%), 여자는 32만6천명으로 1만명(-2.9%)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전년 동월대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만9천명(6.2%) 증가한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만명(-11.6%) 도소매·숙박음식업은 7천명(-4.2%), 건설업 5천명(-6.8%) 등에서 줄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월대비 관리자·전문가 1만 4천명(7.9%), 사무종사자 3천명(2.3%) 등에서 늘었다. 하지만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자가 2만명(-7.1%), 서비스·판매종사자는 8천명(-4.8%)이 각각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비임금

납 고용률은 63.0%로 전년 동월대비 0.1%p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96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한편, 지난달 전국 실업자 수는 124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4천명 늘었다. 실업률도 0.3%p 오른 4.4%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광주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달 광주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고, 여자는 3.7%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실업자는 3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천명(-4.4%) 감소했으며 성별로 보면 남자는 2만2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천명(-6.0%), 여자는 1만3천명(-1.6%) 감소했다.

/임후성 기자

여수 경도관광개발단지 하반기 착공 탄력

여수 경도해양관광 조성사업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해 하반기 착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파

르면 지난 4월 승인된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투자자인 미래에셋에서 제출한 호텔, 콘도, 상업시설 등의 사업계획이 담긴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추후 절차인 경도 관광

광양만청, 실시계획 승인

단지 하반기 착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도 관광단지는 전남개발공사가 추진했던 1단계 면적을 포함해 214만3천353㎡(64만평 규모)이 개발된다. 총 사업비는 1조3천850억원으로 2024년까지 개

발할 예정이다.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가 건설되고, 관광단지 내 6성급, 4성급 호텔 2곳과 콘도, 워터파크, 해수욕,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게 된다.

미래에셋은 올해 말부터 부지조성에 들어가 2024년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 TV

제6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6강·명승권 국립암센터 교수

다동경 고향의 집 개관 3주년 후원 음악회 '사랑나눔 콘서트'

2019 광주대표음식 페스티벌

▶m.kjdaily.tv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사정문의 062)650-2024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과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한국전력공사 KEPCO